

과학기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글 | 박성철 _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협동과정 강사 sc0314@freechal.com

‘호외’란 것이 있다. 신문은 하루하루 발행할 때마다 호수를 매기는데, 이 호수와 관계없이 덩으로 발행되는 낱장으로 된 신문을 말한다.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이 터졌을 때마다 어김없이 호외가 발행됐다. 호외에는 하루 단위의 발행 주기조차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고 시급한 소식들이 실린다. 그 중에서도 1986년 ‘김일성 사망’ 소식을 전한 호외는 가장 기억에 남는다. 내용도 충격적이었거니와 바로 얼마 뒤 오보로 밝혀졌던 탓이다.

매체환경 변화에 따른 신문의 ‘매거진화’

그리고 보면, 당시 신문은 속보성 매체였던 셈이다. 사람들은 신문을 통해 가장 먼저 소식을 접했다. 인터넷이 있을 리 없었을 뿐더러, 텔레비전 뉴스를 보려고 해도 저녁 방송시간까지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발행주기가 상대적으로 긴 ‘신문’이나 ‘월간조선’ 같은 월간지들은 같은 토픽을 다루더라도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해설을 실었다. 신문과 잡지의 발행주기의 차이는 동일한 토픽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인터넷의 등장은 이러한 뉴스매체 시장의 구도를 뿌리째 흔들었다. 신문은 더 이상 속보성 매체로 존재할 수 없었다. 이미 지상파 텔레비전의 방송시간이 확대되면서 속보경쟁에서 확연히 밀리기 시작한 터였다. 인터넷매체들은 실시간으로 뉴스를 전달했고, 하루에도 수시로 기사를 편집하고 새로운 기사를 올렸다. 종이에 ‘인쇄’ 해서 독자에게 ‘배달’ 해야 하는 신문이 인터넷의 ‘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었다. 자연스레 호외는 자취를 감췄다.

신문의 변화는 불가피했다. 신문들은 속도를 인터넷 매체에 내

주는 대신 깊이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자원의 집중적 투입을 통해 기획 기사를 싣고 분석적 해설 기사를 늘려갔다. 단순 사실 기사는 인터넷에서 보더라도 그 의미와 분석은 신문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신문의 ‘매거진화’는 매체환경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런 변화의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과학보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다. 단, 이것의 현실화는 과학분야 취재조직과 과학뉴스에 대한 혁신적 사고의 전환을 전제로 한다.

신문 지면에서 설자리 잃는 과학뉴스

매체들 사이의 속도경쟁은 과학뉴스를 다루기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발행주기가 짧은 매체일수록 과학뉴스가 살아남기 어렵다. 과학을 이해하기 위한 숙고의 시간을 허락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과학보도는 다른 영역에 비해 취재 자체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취재원이 널려있는 정치뉴스에 비해 과학뉴스는 취재원을 찾는 것부터가 일이다. 또한, 과학자로부터 인터뷰한 내용은 다시 독자의 언어로 바꿔 주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기자가 과학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대단히 힘겨운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어느 분야의 과학자를 취재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난해한 과학 아이템을 몇 시간 내로 빨리, 그것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쓰라는 요구가 과학기자에게 주어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신속성이나 시의성을 아예 외면하는 것이다. 신문이 속보성 매체였던 시절에도 이 방법은 꽤나 유효했다. 일주일에 한번 나오는 과학면의 기사를 일찌감치 써놓을 수 있다. 예컨대, 우리 주변의



다양한 자연현상들을 설명해주는 기사들이 대표적이다. '단풍은 어떻게 물들게 되는지', '태풍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처럼 과학상식을 정리해 놓은 기사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유형의 기사들은 과학지식을 전달해 줄지는 모르나, '신문'이라는 매체의 속성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날그날의 '뉴스'를 알기 위해 신문을 본다. 과학지식의 습득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기사들은 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는 과학잡지에 더 어울린다. 신문과 잡지가 갖고 있는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외면하는 것이다.

과학적 측면에서 시사적 사건 다룬 뉴스 부재

신문에서 과학토픽만으로 독자의 눈길을 잡기는 어렵다. 신문을 읽는 독자들이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루 단위의 발행주기를 갖는 신문은 원천적으로 시의성을 외면할 수 없다. 과학뉴스가 시의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최근의 사건들을 과학과 연결짓는 것이다. 대개 큰 사건이 터지면, 정치·경제·사회분야의 취재 부서들은 각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다룬다. 그러나 과학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기사는 거의 없다. 그 사건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분석은 익숙하지만, 과학적 접근은 해 본 적도 없을 뿐 아니라 어렵기도 하기 때문이다.

서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를 예로 들어보자. 지역경제와 피해보상과 같은 경제적 측면, 정치권의 대책과 정치인들의 반응을 비롯한 정치적 측면, 지역민의 반응과 봉사활동과 같은 사회적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엄청난 양의 기사가 쏟아졌다. 그러나 과학적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접근한 기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몇몇 환경전문기자들의 기사가 눈에 띄었을 뿐, 대부분 보도자료를 옮긴 수준이었다.

원유유출이라는 환경재난의 극복 과정에서 과학기술의 도움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고 싶어 할 것이고 잘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원유유출 사고에 공동체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해결방안으로 제시되는 과학기술에 대

해서도 주목할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과학자의 개별 연구성과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시사적 사건을 과학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과학기사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건의 시의성에 편승함으로써 '신문' 독자의 기대에도 부응하게 되고, 관심이 집중된 토픽과 연결되기 때문에 지식전달의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으며, 문제의 해결방안과 연결됨으로써 과학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유도할 수도 있다. 과학보도가 가지는 딜레마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선제적 취재, 인력·조직 확보해야 한계 극복

하지만, 이러한 과학뉴스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 먼저, 기자 스스로 아이템을 발굴하는 '선제적 취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과학자의 연구성과 발표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최근의 토픽 내지 이슈들과 과학기술을 연결할 수 있는 기사거리들을 끊임없이 탐색하고 그 분야의 핵심 과학자들을 취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 과학자로부터 시작되는 과학기사가 아니라 기자로부터 시작되는 과학기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력과 조직이 확보되어야 한다. 산업부나 사회부에 소속된 한 두 명의 과학담당기자로서는 불가능하다. 정치·경제·사회분야의 취재조직에 버금가는 규모의 과학부(팀)이 구성되어야 한다. 과학취재에 대한 관점을 바꾼다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과학계의 소식을 전하는 좁은 의미의 '과학담당'이 아니라 시사적 사건들에 대해 과학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과학부'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새로운 과학기사의 출현은 취재조직으로서의 과학부(팀)와 과학기사에 대한 혁신적 사고의 전환을 전제로 한다. 속도를 인터넷 매체에 넘겨준 이상, 신문은 이제 속고의 매체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 과학은 가장 훌륭한 속고의 대상이자, 방법이다. ㉔



글쓴이는 서강대학교 화학과 졸업 후 동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과학커뮤니케이션으로 석사·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강대 과학문화아카데미 교수부장, 국회 입법정보연구관을 지냈다.